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의 공동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으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주석님께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6돐을 맞이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1 374만 390원

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4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82억 1 973만 390원에 달한다.

본사기자

##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업적토론회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었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이민주체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치시었다. 주석의 인민사랑의 헌신적 생애와 업적을 깊이 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은 그이를 영

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 벨라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조 책임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조선혁명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그이께서는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

신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정치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이신다고 찬양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4월 14일 중국예술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부장을 다시 만났는데 대하여 반기워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규모의 관록있는 예술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송도부장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시교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송도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 원수님께 보내온 습근평주석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지도간부들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얼마전에 있는 중국방문의 잇을수 없는 나날 중국동지들이 따뜻한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담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여준데 대하여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송도 대외연락부장은 조선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중국예술단에 대한 조선



당과 정부의 따뜻한 정과 열정적이며 특수한 환대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히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리면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습근평총서기 동지가 특별히 관심하여 직접 선발하여 보낸 예술단인것만큼 자신께서 영접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특별적으로 잘 맞이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며 또 주인으로서, 가까운 벗으로서 응당한 일이라

고 하시면서 중국예술단의 체류기간 당과 정부의 해당 부문들이 총동원되어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예술단이 평양방문기간 공연활동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과 이를 계기로 두 나

라 인민의 감정이 더욱 소통하고 조종 예술교류의 새시대를 창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교 말씀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조종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두 당사이의 고위급대표단교류를 비롯하여 당적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여러 분야, 여러 부문들사이의 협조와 래왕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발전단계으로 적극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데 대해 지적하시였다.

송도 대외연락부장은 조종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조종관계의 장기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새로운 기여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4월 14일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리수용,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용원, 권혁봉, 김병호, 홍광순, 김성남, 리창근,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 박춘남문화상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외연락부장과 중국예술단 전체 성원들 그리고 리진군 주조종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송도부장을 비롯한 중국손님들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예술단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연회에서는 먼저 중국예술단을 위한 삼지연편향악단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의 환영공연이 있었다.

이어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 송도 대외연락부장이 축배사를 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종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친히 안아오

신 조종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며 불패의 친선단결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고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김정은 원수님과 습근평주석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시종 우의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여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4월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여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수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최희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준남문화상, 당 중앙위원회 성원들, 문화예술부문 성원들, 창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합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성원들과 반제민주주의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 외국인들이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극장에 도착하시자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리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풍영 중국중앙발레무용단 단장,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송도부장을 비롯한



중국 손님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전통적인 조종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주시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뚫골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홍분을 안고 중국중앙발레무용단의 예술인들은 성의를 다하여 준비한 발레무용극을 무대에 올렸다.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피어린 혁명투쟁을 벌이며 성장하는 중국여성들의 강인한 정신을 실감있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출연자들에게 우리 예술인들이 꽃바구니를 전하였으며 관람자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중국예술단의 주

요배우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공동의 재부인 조종천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중국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부장을 비롯한 중국 손님들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예술단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중국의 민족무용과 발레교류를 특색있게 결합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이 계기를 통하여 중국인민의 친선의 정을 우리 인민들에게 따뜻이 안겨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두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송도부장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와 조선인민에게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일수 있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성과는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조선인민의 지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습근평동지가 김정은동지와 이룩하신 공동의 합의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당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의도를 받들어 문화예술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 조종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예술단의 공연성과를 다시한번 축하하시면서 관록있는 예술단을 평양에 보내준 습근평동지에게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종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혁명적단결과 혈연적유대를 힘있게 과시하고 조종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는데 이바지한 중국예술단의 평양방문공연은 조종친선관계발전사에 빛나는 한페지로 장식될것이다.

본사기자



#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형제적중국인민의 친선의 정을 전하기 위하여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첫 공연이 14일 만수대에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중앙발레무용단의 발레무용극 《지젤》을 관람하시였다.

리설주녀사께서 극장에 도착하시자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리군 중국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중국에

서 손님들과 화기에 넘치는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중국의 첫 전문발레무용단으로서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있는 중앙발레무용단은 세계일류급예술단체로서의 높은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낭만주의발레무용극의 대표작인 발레무용극 《지젤》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중들의 심금을 사로잡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무대에 올라가 섬세한 연기와 화려하고 세련된 높은 무용기교로 깊은 인상을 남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오래도록 보내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터뜨렸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공연을 통하여 중국예술인들은 조종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고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형제적중국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또 다시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4월 17일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또 다시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빛나게 장식하여준 중국동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시기에 진행되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매우 훌륭한 방문이었으며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뉴대와 호상 존경의 감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문화예술교류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언급하시였다.



송도부장은 조선인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들을 형제적친근감을 가지고 가장 열렬히 그리고 성대히 환영해 대하여 감동깊이 말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당과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조선인민의 각별한 고도 친절한 정을 뜨겁게 느끼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직접 취하신 조치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예술단의 이번 방문성과는 전적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특별한 친분관계와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중앙은 앞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정치적인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전통적인 선단결의 기반을 토대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부장과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래왕을 활발히 하며 두 당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도 보다 강화해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부장이 귀국하면 뜻깊은 시기에 예술단을 파견하여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 조선인민의 가장 훌륭한 벗이며 가장 친근한 동지인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중국인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꼭 전하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일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의 정 넘쳐흐르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과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과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4월 17일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리설주녀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용원, 권혁봉, 김병호,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성원들과 우리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만찬에는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과 리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중국 예술단 예술인들 그리고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초대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는 만찬장앞에서 송도부장을 비롯한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맞이하시였다.

진실한 정을 맺고 더더욱 친숙해진 중국동지들과 함께 한 만찬은 친목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만찬이 끝난 후 송도부장을 비

롯한 중국동지들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시며 뜨겁게 배래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송도부장은 중국예술단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평양방문기간 특별하고도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 온 겨레를 품어안은 하늘같은 도량입니다

세기를 넘어 분열의 골만 깊어가던 이 땅에 통일의 장엄한 봄시위가 격류친다.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시키는 민족 대단합의 경이적인 화폭들이 현이 펼쳐지고 바야흐로 북남수뇌상봉의 역사적인 사변이 도래하게 될 가슴벅찬 현실을 접하느니라 대범하고 통 큰 결단으로 삼천리에 화해의 훈풍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최고령도자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

역사의 방향타를 역세계 틀어쥐시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펼쳐가시는 최고령도자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우려물수록 70년전 4월의 봄날 역사적인 첫 민족대회를 마련하시고 온 겨레를 통일대업실현에로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다시 비움는것만 같아 한없는 그리움속에 주석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높으신 덕망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본다.

## 1

예로부터 만사를 다 대범하게 처리하는 품성을 도량으로 일러왔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어줄수 있는 인덕을 포용력이라 하여왔다. 정치가의 으뜸가는 덕목도 도량과 포용력이라는것이 고금의 통례이다.

김일성주석님은 그 품에 있어서나 감화력에 있어서 동서고금의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었던 뛰어난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대성인이시였다.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한없이 판후한 품모로 만사함을 감복시킨 주석님이다. 당년 15세밖에 안되시였던 주석님의 비범한 인격은 그때 벌써 주위의 학우들과 교원들은 물론 《정의부》, 《참의부》의 고루한 령감들, 더부룩한 《주의자머리》를 기르고 다니던 행세식 맑스주의자들까지도 되었고 무산혁명의 라도대상이라던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까지도 민족적합성만 지녔다면 누구라함이 한품에 안아 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그 과정에 대부분이 자식이 주석님의 동지가 되고 천도교인이 주석님의 보충으로 혁명군에 입대하는가 하면 대지주가 애국지주로 되고 종교교직자가 조국광복회원이 되는 경이로운 일화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였다.

사실 선행리론이 《절대의 진리》로 공인되던 당시에 인덕리와 민족자본가, 종교인들을 혁명의 품에 끌어안는다는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대우단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그러한 웅단이 혁명실천에서의 창조적발상이라기보다는 혁명을 이끄는 령수의 인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모르는 소견에도 혁명이란 낱은것을 뒤집어엎는 폭력이기 전에 인간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는 사랑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숭고한 위업을 이룰 령수에 그 있어서 그 어떤 자질과 능력에 앞서 갖추어야 할 품모가 바로 인덕이 아닐겠는가 하는것이다. 인류가 수수천년 갈망해온 사회도 인덕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덕을 갖춘 참된 위인의 출현을 예라게 고대하여온것이다. 뜨거운 인간애와 한량없는 도량, 특출한 포용력을 친품으로 지니시고 시대의 버림을 받던 인간들까지 차별없이 품어안아 참삶에로 이끌어주시 주석님이 이야말로 인류가 그러던 위인상을 완벽하게 체현한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시기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그 특유의 인격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한품에 안고 품은 미례를 가우어하시였다. 애국애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란 품과 경력을 가립없이, 과거의 잘못도 탓함이 없이 모두 받아들여 사랑과 믿음을 주는 주석님의 넓은 시 도량이야말로 해방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북의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생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문제도 주석님께서서는 한없이 고결한 인덕으로 풀어나가시였다.

민족의 대단합은 통일의 전제이며 근본담보이다. 그런데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대단합이 실현되려면 각이한 계급에서 흘러드는 수백수천의 시내물들을 다 품어안은 대하와도 같이 천차만별의 민족성원모두를 안아주는 넓은 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1948년 4월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는 그 위대한 품에 대한 시대의 찬가이기도 하였다.

국도량단이 고정화되어가고있던 당시 남북의 현실을 보면 남조선에서는 각양각색의 주의주장을 내세운 수많은 정파들간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있고 북에서도 일부 일군들이 남쪽의 정파싸움에 침을 뱉을뿐 그들과의 합작과 대단합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지 못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생의 말년까지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을 잊지 못하며 자식들 앞에서 자주 회억하곤 한것도 청탁병탄의 도량으로 민족단합의 첫 시원을 마련하신 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가슴속깊이 간직되어있었기 때문이었던것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 품에 한번 안기면 어지럽던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게 하여주는 주석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덕망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있는것인가.

나는 그것이 뜨거운 민족애라고 본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표방하며 정적들

하고있었다. 오직 한분 주석님께서만이 우리가 조성된 난국을 알아서 보기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력사와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통일독립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려석회의를 받기하시였다.

당시 김구의 《한국독립당》 산하 청년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나의 아버지는 려석회의의 전말에 대해 비교 적 상세하게 기억하고있었다. 아버지의 회상에 의하면 북에서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려석회의준비에 착수한 일군들이 제일 크게 놀란것은 반공을 일삼던 국유인민주주의적자들, 지어 김구와도 거어어 합작하려는 주석님의 확고한 결심이었다고 한다. 주석님의 단합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석님의 뜻을 모르느냐 아니였으나 일성동안 공산주의와 적대해는 우익정치세력의 거두이고 해방후에는 테로단까지 파견하며 북과 맞서 싸운 김구와 같은 인물들하고까지 손을 잡는다는것은 참으로 생각밖의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석님께서서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이들의 얼룩진 인생에서도 민족을 위하는 한가지의 망심을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단합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성도 평양에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인민주의자들, 지어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야 민족의 운명문제를 려석대회하게 론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음미해볼수록 깊은 감명을 자아낸다.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무릎을 마주하였다는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모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견해의 일치를 보고 회의결정자가 모두의 찬동속에 채택되었다는것은 얼마나 경이적인 사변이던가.

당시 김구를 수행하였던 한 인사는 좌익과 중도는 물론 반공우익정파들까지 민족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회한한 화폭 앞에서 격동을 금치 못해 이렇게 토로했었다 한다.

《아, 얼마나 극적이냐, 어제까지도 반공일선에 서있던 저 어른들이 민족의 영걸을 한번 비움자마자 그 높으신 뜻과 덕망에 감복하여 려공편복의 인생대 전환을 하는구나!》

실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아버지주석님의 품이 얼마나 너그럽고 온정적인지 위대한 품이며 그분의 도량과 포용력이 얼마나 큰 견인력과 감화력을 지닌것인가를 보여준 분별의 화폭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생의 말년까지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을 잊지 못하며 자식들 앞에서 자주 회억하곤 한것도 청탁병탄의 도량으로 민족단합의 첫 시원을 마련하신 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가슴속깊이 간직되어있었기 때문이었던것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 품에 한번 안기면 어지럽던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게 하여주는 주석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덕망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있는것인가.

나는 그것이 뜨거운 민족애라고 본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표방하며 정적들

하고있었다. 오직 한분 주석님께서만이 우리가 조성된 난국을 알아서 보기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력사와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통일독립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려석회의를 받기하시였다.

당시 김구의 《한국독립당》 산하 청년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나의 아버지는 려석회의의 전말에 대해 비교 적 상세하게 기억하고있었다. 아버지의 회상에 의하면 북에서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려석회의준비에 착수한 일군들이 제일 크게 놀란것은 반공을 일삼던 국유인민주주의적자들, 지어 김구와도 거어어 합작하려는 주석님의 확고한 결심이었다고 한다. 주석님의 단합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석님의 뜻을 모르느냐 아니였으나 일성동안 공산주의와 적대해는 우익정치세력의 거두이고 해방후에는 테로단까지 파견하며 북과 맞서 싸운 김구와 같은 인물들하고까지 손을 잡는다는것은 참으로 생각밖의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석님께서서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이들의 얼룩진 인생에서도 민족을 위하는 한가지의 망심을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단합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성도 평양에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인민주의자들, 지어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야 민족의 운명문제를 려석대회하게 론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음미해볼수록 깊은 감명을 자아낸다.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무릎을 마주하였다는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모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견해의 일치를 보고 회의결정자가 모두의 찬동속에 채택되었다는것은 얼마나 경이적인 사변이던가.

당시 김구를 수행하였던 한 인사는 좌익과 중도는 물론 반공우익정파들까지 민족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회한한 화폭 앞에서 격동을 금치 못해 이렇게 토로했었다 한다.

《아, 얼마나 극적이냐, 어제까지도 반공일선에 서있던 저 어른들이 민족의 영걸을 한번 비움자마자 그 높으신 뜻과 덕망에 감복하여 려공편복의 인생대 전환을 하는구나!》

실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아버지주석님의 품이 얼마나 너그럽고 온정적인지 위대한 품이며 그분의 도량과 포용력이 얼마나 큰 견인력과 감화력을 지닌것인가를 보여준 분별의 화폭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생의 말년까지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을 잊지 못하며 자식들 앞에서 자주 회억하곤 한것도 청탁병탄의 도량으로 민족단합의 첫 시원을 마련하신 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가슴속깊이 간직되어있었기 때문이었던것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 품에 한번 안기면 어지럽던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게 하여주는 주석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덕망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있는것인가.

나는 그것이 뜨거운 민족애라고 본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표방하며 정적들

하고있었다. 오직 한분 주석님께서만이 우리가 조성된 난국을 알아서 보기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력사와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통일독립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려석회의를 받기하시였다.

당시 김구의 《한국독립당》 산하 청년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나의 아버지는 려석회의의 전말에 대해 비교 적 상세하게 기억하고있었다. 아버지의 회상에 의하면 북에서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려석회의준비에 착수한 일군들이 제일 크게 놀란것은 반공을 일삼던 국유인민주주의적자들, 지어 김구와도 거어어 합작하려는 주석님의 확고한 결심이었다고 한다. 주석님의 단합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석님의 뜻을 모르느냐 아니였으나 일성동안 공산주의와 적대해는 우익정치세력의 거두이고 해방후에는 테로단까지 파견하며 북과 맞서 싸운 김구와 같은 인물들하고까지 손을 잡는다는것은 참으로 생각밖의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석님께서서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이들의 얼룩진 인생에서도 민족을 위하는 한가지의 망심을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단합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성도 평양에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인민주의자들, 지어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야 민족의 운명문제를 려석대회하게 론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음미해볼수록 깊은 감명을 자아낸다.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무릎을 마주하였다는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모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견해의 일치를 보고 회의결정자가 모두의 찬동속에 채택되었다는것은 얼마나 경이적인 사변이던가.

당시 김구를 수행하였던 한 인사는 좌익과 중도는 물론 반공우익정파들까지 민족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회한한 화폭 앞에서 격동을 금치 못해 이렇게 토로했었다 한다.

《아, 얼마나 극적이냐, 어제까지도 반공일선에 서있던 저 어른들이 민족의 영걸을 한번 비움자마자 그 높으신 뜻과 덕망에 감복하여 려공편복의 인생대 전환을 하는구나!》

실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아버지주석님의 품이 얼마나 너그럽고 온정적인지 위대한 품이며 그분의 도량과 포용력이 얼마나 큰 견인력과 감화력을 지닌것인가를 보여준 분별의 화폭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생의 말년까지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을 잊지 못하며 자식들 앞에서 자주 회억하곤 한것도 청탁병탄의 도량으로 민족단합의 첫 시원을 마련하신 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가슴속깊이 간직되어있었기 때문이었던것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 품에 한번 안기면 어지럽던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게 하여주는 주석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덕망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있는것인가.

나는 그것이 뜨거운 민족애라고 본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표방하며 정적들

하고있었다. 오직 한분 주석님께서만이 우리가 조성된 난국을 알아서 보기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력사와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통일독립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려석회의를 받기하시였다.

당시 김구의 《한국독립당》 산하 청년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나의 아버지는 려석회의의 전말에 대해 비교 적 상세하게 기억하고있었다. 아버지의 회상에 의하면 북에서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려석회의준비에 착수한 일군들이 제일 크게 놀란것은 반공을 일삼던 국유인민주주의적자들, 지어 김구와도 거어어 합작하려는 주석님의 확고한 결심이었다고 한다. 주석님의 단합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석님의 뜻을 모르느냐 아니였으나 일성동안 공산주의와 적대해는 우익정치세력의 거두이고 해방후에는 테로단까지 파견하며 북과 맞서 싸운 김구와 같은 인물들하고까지 손을 잡는다는것은 참으로 생각밖의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석님께서서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이들의 얼룩진 인생에서도 민족을 위하는 한가지의 망심을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단합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성도 평양에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인민주의자들, 지어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야 민족의 운명문제를 려석대회하게 론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음미해볼수록 깊은 감명을 자아낸다.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무릎을 마주하였다는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모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견해의 일치를 보고 회의결정자가 모두의 찬동속에 채택되었다는것은 얼마나 경이적인 사변이던가.

당시 김구를 수행하였던 한 인사는 좌익과 중도는 물론 반공우익정파들까지 민족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회한한 화폭 앞에서 격동을 금치 못해 이렇게 토로했었다 한다.

《아, 얼마나 극적이냐, 어제까지도 반공일선에 서있던 저 어른들이 민족의 영걸을 한번 비움자마자 그 높으신 뜻과 덕망에 감복하여 려공편복의 인생대 전환을 하는구나!》

실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아버지주석님의 품이 얼마나 너그럽고 온정적인지 위대한 품이며 그분의 도량과 포용력이 얼마나 큰 견인력과 감화력을 지닌것인가를 보여준 분별의 화폭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생의 말년까지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을 잊지 못하며 자식들 앞에서 자주 회억하곤 한것도 청탁병탄의 도량으로 민족단합의 첫 시원을 마련하신 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가슴속깊이 간직되어있었기 때문이었던것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 품에 한번 안기면 어지럽던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게 하여주는 주석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덕망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있는것인가.

나는 그것이 뜨거운 민족애라고 본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표방하며 정적들

하고있었다. 오직 한분 주석님께서만이 우리가 조성된 난국을 알아서 보기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력사와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통일독립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려석회의를 받기하시였다.

당시 김구의 《한국독립당》 산하 청년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나의 아버지는 려석회의의 전말에 대해 비교 적 상세하게 기억하고있었다. 아버지의 회상에 의하면 북에서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려석회의준비에 착수한 일군들이 제일 크게 놀란것은 반공을 일삼던 국유인민주주의적자들, 지어 김구와도 거어어 합작하려는 주석님의 확고한 결심이었다고 한다. 주석님의 단합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석님의 뜻을 모르느냐 아니였으나 일성동안 공산주의와 적대해는 우익정치세력의 거두이고 해방후에는 테로단까지 파견하며 북과 맞서 싸운 김구와 같은 인물들하고까지 손을 잡는다는것은 참으로 생각밖의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석님께서서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이들의 얼룩진 인생에서도 민족을 위하는 한가지의 망심을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단합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성도 평양에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인민주의자들, 지어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야 민족의 운명문제를 려석대회하게 론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음미해볼수록 깊은 감명을 자아낸다.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무릎을 마주하였다는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모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견해의 일치를 보고 회의결정자가 모두의 찬동속에 채택되었다는것은 얼마나 경이적인 사변이던가.

당시 김구를 수행하였던 한 인사는 좌익과 중도는 물론 반공우익정파들까지 민족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회한한 화폭 앞에서 격동을 금치 못해 이렇게 토로했었다 한다.

《아, 얼마나 극적이냐, 어제까지도 반공일선에 서있던 저 어른들이 민족의 영걸을 한번 비움자마자 그 높으신 뜻과 덕망에 감복하여 려공편복의 인생대 전환을 하는구나!》

실로 려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아버지주석님의 품이 얼마나 너그럽고 온정적인지 위대한 품이며 그분의 도량과 포용력이 얼마나 큰 견인력과 감화력을 지닌것인가를 보여준 분별의 화폭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생의 말년까지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을 잊지 못하며 자식들 앞에서 자주 회억하곤 한것도 청탁병탄의 도량으로 민족단합의 첫 시원을 마련하신 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가슴속깊이 간직되어있었기 때문이었던것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 품에 한번 안기면 어지럽던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게 하여주는 주석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덕망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있는것인가.

나는 그것이 뜨거운 민족애라고 본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표방하며 정적들

## 절통적인 조종친선을 더욱 두터이 하시여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중국예술단이 조선반공민정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갔다. 조종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진행된 중국예술단의 이번 조선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종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였다.

중국은 중중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뜻깊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는 평양에 대규모의 편목되는 예술단을 파견하였다. 조선에서 황홀한 공연무대를 펼친 예술단은 습근평 총리인민공화국 주석이 특별히 편신하여 직접 선발하여 보낸 예술단이다.

조종친선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국예술단의 조선방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특례적으로 잘 맞이하도록 하시였으며 예술단의 체류기간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중국예술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장을 접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부장관 일행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중국예술단이 평양방문기간 공연활동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과 이를 계기로 두 나라 인민의 감정정이 더욱 소통하고 조종애호교류의 새시대를 창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송도부장은 중국예술단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따뜻한 정과 열정적이며 특수한 환대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히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그에 대한 소감을 펴력하였다.

중국예술단의 평양방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6일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연을 보시고 중국예술단이 훌륭한 공연을 하였으며 중국인민의 친선의 정을 우리 인민들에게 따뜻이 안겨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예술단의 평양체류기간 송도부장을 또다시 만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시기에 진행되는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매우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하시며 조종문화교류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조종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정치

적신회를 더욱 증진시키고 전통적친선단결의 기반을 토대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종관계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송도부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직접 취하신 조치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예술단의 이번 방문성공과 친선적응으로 조종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특별한 친분관계와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부장관과 중국예술단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연회와 만찬도 마련하시였다.

평양방문기간 특별하고도 과학적인 환대를 하여주시고 그이께 송도부장은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마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려사적인 비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신데 이어 이번에도 조선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관과 중국예술단을 특별적으로 따뜻이 맞이해주신것은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는 전통적인 조종친선의 계승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커다란 공헌으로 된다.

본사지리설

## 단상 봄날의 품을 품어안는 하늘같은 도량입니다

봄이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강산에 따스한 봄의 훈향이 이운차게 태동한다.

어느새 어찌마다 새순이 움트더니 잇달아 활짝 핀 꽃들이 아름다움과 향기를 펼친다.

참으로 좋은 봄이다. 흥그러운 계절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긴만 이해의 봄에 느끼는 정서는 남달리 독특하고 류다르다.

겨울의 엄혹함과 봄의 훈향의 차이를 여느때없이 때때로 체험한 까닭이 아닌지...

문득 나에게서는 올해의 첫 아침 온 행성에 메아리친 절세위인의 우렁우렁 하신 음성이 귀전에 울려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해의 첫 아침 려사적인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장건 일흔흔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

에서는 겨울철울림평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라고,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지난해에도 봄계절은 왔지만 북남관계는 엄동설한의 동결상태대로였다.

불신과 적대, 반복과 대결이 팽기를 부리던 그 모든것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최대로 얼어붙게 했다.

그러던 이 땅에 새해의 첫 아침이 밝았다. 그 아침과 더불어 삼천리에 울려 퍼진 따스한 봄빛같은 원수님의 신년사는 얼음산과 대결의 두려운 얼음장을 일순간에 쟁쟁하고 녹여버렸다.

겨울철울림평경기대회에서 북남선수들의 공동입장과 북남단일팀구성, 공

화국의 응원단과 남측관중들의 열광적인 통일응원, 삼지연관현악단의 이채로운 공연 등은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내며 겨레의 가슴가슴을 민족애와 통일 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겨울은 몹시 추웠지만 우리 겨레에게는 류달리 따스한 겨울이었다.

그 따스한 겨울이 이해의 따뜻한 봄으로 이어졌다.

꽃피는 4월 평양에서 펼쳐진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 북남예술인들의 려향공연무대 《우리는 하나》는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호를 더욱 추동해주시려는 위인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마련된것이었다.

그 나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남측 예술인들이 생의 첫 준비한 공연 《봄이 온다》를 몹소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피

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신 뜻깊은 말씀은 지금도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화창한 봄날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말씀하신 절세위인의 따스하고 자신감 넘치는 음성.

그 말씀을 접차시어 풍요한 가을의 가슴호듯한 풍경을 눈앞에 그려본 우리 겨레이다.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께서 마련해주신 북남관계개선의 소중한 싹을 품어 가꾸고 무성하게 자라워나갈것이다.

그 길에 꽃이 찬사리개 내리고 폭풍이 몰아쳐도, 왕가물이 들고 폭우가 쏟아져도 반드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리라 믿는다. 김광일



